



1910年代의 花卉園藝

한 말(韓末)의 우리 정부는 1894년의 갑오개혁후 신문물을 받아들이고져 1895년 소(초등)학교령과 1899년의 중학교 관제를 연이어 공포(公布)했다. 1906년에는 수원농림학교, 1908년에 평양농업학교를 필두로 1910년부터는 각도에 1개교씩의 공립농업학교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 계획에 의거 1910년 7월 2년제의 공주농업학교(1920년에 예산으로 옮겨 예산농업이 됨) 등 각 도에 농업학교가 설치되었으나 공통된 농업교재가 문제였다.

이에 일제 총독부는 1913년에 시급한 식량작물 교재로 작물통론(作物通論)과 작물각론(作物各論)을 발간 배포하고 다음해인 1914년에 작물교과서 「원예작물의 부문」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모두 382면의 방대한 일어(日語) 농서로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총론 및 각론이 망라된 관찬(官撰)의 신식교과서로 되어있다. 그 내용은 당시까지 이룩된 일본 농업기술의 성과가 망라된 책이긴 하나 우리 선인들이 연구 개발해왔던 전통적 원예기술은 전혀 그 내용에 인용되고 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그 내용중 90%에 해당하는 채소(1편), 과수(2

편)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김진초(金鎭初)의 「과수재배법」 그리고 장지연(張志淵)의 「소채재배전서」에 미루고 여기에서는 10%에 해당하는 제3편의 「화훼원예」 부분만을 소개코저 한다.

화훼원예는 모두 2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의 화훼에는 1절에 화원(花園)의 요소(要素)를 풀이하고 있다. 먼저 화원의 위치 선정은 주도면밀한 화원관리를 전제로 가옥 근처를 택할 것이나 건물이나 나무그늘 때문에 화훼작물 성장이 지장을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화단(花壇)은 화원내에 관상 또는 장식용 화훼를 기를 목적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구획지은 시설을 말한다 하였다.

화단의 모양은 원형, 나비형, S자형, 원형삼각형내에 직삼각형 등 여러가지 곡선형으로 만들어 지표보다 15~20cm 정도 높게 설치할 것이며 그밖에 넓은 잔디정원(庭園)의 조성법 등이 풀이되고 있다.

화원의 통로(通路)는 화원의 크기에 따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직선통로는 우회통로보다 폭을 넓게하고 화단보다는 낮게 설치하되 통로 양측은 배수구를 설치한다고 되어있다.

화원의 주변에는 경계를 짓고져 다년생의 왜생

(倭生), 관상수를 심는게 보통이나 왜생 1년초로 '반지' '왜성국화' 등을 심을 수 있다고 한다.

제2절의 화원의 설비에서는 묘상(苗床), 배양토, 화훼용기구(器具) 등을 풀이하고 있는데 특기할 것은 초화류의 종류에 따라 모래, 점토, 부엽토, 박류(粕類) 등의 혼합비율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제3절 종묘(種苗)에서는 화훼번식법으로 파종법, 삼목법, 그루나누기법 등이 소개되고 있으나 특기할 것은 화훼변종(變種)의 육성에 대한 언급이다. 우연하게도 변종이 발견되었을때는 이를 이용할 것이나 변종은 대부분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품종간의 교배육종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교배육종의 방법은 제웅(除雄), 이 품종의 수분매조(受粉媒助), 종이봉지씌우기, 성숙된 일대잡종의 파종, 그리고 선호하는 식물의 선발요령 등이 풀이되고 있다.

만일 일대잡종에서 바람직한 품종이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2대 잡종에서 고르거나 새로운 교배조합(組合)을 통한 인공교잡을 반복해야 한다며 주의사항으로 교배양친의 선정은 어디까지나 근연종 또는 근연품종끼리 교배시켜야 성공률이 높다고 하였다.

제2장은 화훼각론이다. 춘하추동으로 나누어 제1절에는 봄철에 피는 꽃으로 판지, 추립, 미인초, 앵초(櫻草) 등을 예시하고 있다. 작물마다 생육환경, 번식법, 재배관리, 특기사항 등의 순으로 풀이하고 있다.

제2절 여름철의 초화류로 다리야, 카네이션, 석죽(石竹 패랭이꽃), 금어초(金魚草), 금잔화(金盞花), 작약, 송엽(松葉)모란, 나팔꽃, 구라지

오라스 등 1년생 초화나 구근류, 피근류 등을 풀이하고 있다. 그 풀이의 순서는 봄철 초화류와 같다. 다만 다리야, 카네이션, 나팔꽃 등 수분을 즐기는 초화류의

관리를 실기하지 말도록 강조하고 있다.

제3절 가을의 꽃은 코스모스, 맨드라미, 국화, 복수초(福壽草) 등의 재배를 풀이하고 있다. 풀이의 순서는 앞과 같다.

제4절 겨울의 꽃으로 수선화와 히아신스 등 2종의 구근(球根)류를 풀이하고 있다.

이 화훼원에서(書)의 특징을 들면 첫째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초화류를 소개하였다는 것, 둘째로 우리의 전통농서에 없는 교잡육종법을 일반식량작물도 아닌 화훼작물에서 먼저 우리 농학사상 최초로 소개하였다는 것, 셋째로 우리의 전통농서의 총론풀이에 나오는 분종화수법(盆種花樹法) 곧 분재(盆栽)에 대한 언급이나 배분법(排盆法), 꽃이 빨리 피게하는 최화법(催花法), 꽃빛깔을 인공적으로 바꾸는 화색변개법(花色變改法) 등 고도한 화훼기술의 언급이 없어 이런 기술을 일제가 이무렵 모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점, 넷째로 단순한 1년생 초화류에 끝져 우리의 전통농서에 나오는 매화, 부용, 치자, 철쭉, 월계, 해당 등 영년생 목본류재배가 빠져 있다는 점, 다섯째로 화원, 화단 등의 새로운 개념과 오늘날 조경에 가까운 소규모의 아기자기한 일본식 화원설계 등의 소개가 특징인 것 같다. **농약정보**

